

2022년 11월호 (2022.11.09.)

문화정책의 미래 어젠다들

_ 1/2. 아부다비 컬처 서밋 2022 현장에서 발견하는...

작성자 : 김해보 (정책협력실 전문위원, sea@sfac.or.kr)

공공기관에서는 11월이면 내년 예산을 제안하고 승인받는 전투가 막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당장 내년 사업예산도 중요하지만 금방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며 문화정책이 대비해야 할 어젠다들은 무엇일까요? 국제 문화기구들이 내놓는 미래문화정책 보고서들의 어젠다와 논조는 비슷해지지가 한참 되었습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다양한 가능성과 답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문화 현장도 살펴볼 것인데, 마침 지난 10월23일부터 10월25일까지 3일간 아부다비 MAS(Manarat Al Saadiyat) 미술관에서 “2022 아부다비 문화서밋”(Abu Dhabi Culture Summit 2022)이 열려서, 그 현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발간된 자료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니 문화정책하면 주로 유럽, 북미권의 시각을 따르는 것이 스스로의 한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외 지역 특히 우리에게는 낯선 중동의 문화정책 현장을 직접 볼 기회를 갖은 것은 “문화정책의 다양성” 확대 차원에서 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10월23일부터 10월25일까지 3일간 아부다비 MAS(Manarat Al Saadiyat) 미술관에서 열린 “2022 아부다비 문화서밋”(Abu Dhabi Culture Summit 2022)의 행사장 입구

문화정책이슈페이퍼 [문화+정책]은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사회,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이슈들을 사회트렌드 이해 차원에서 재미있게, 문화정책과 관계 지어 깊이 있게 짚어 봅니다. 매달 서울문화재단 블로그와 뉴스레터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

Policy Issue Paper _ 문화+정책

2022년 11월호 _ 문화정책의 미래 어젠다들

[목 차]

1/2. 아부다비 컬처 서밋 2022 현장에서 발견하는...(2022.11.09. 발간)

- (1) 사막과 바다 ... natural & cultural cross-road
- (2) 문화정책 어젠다의 스펙트럼 ... 진주잡이 노동으로부터 휴머노이드의 인간성 토론까지
- (3) 이를 펼쳐 보여줄 수 있는 프리즘 ... 왕권의 리더십?
- (4) 글로벌라이제이션 ... 맥락을 소통하는 문화적 대화

☞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보**

- 중동지역 문화정책 관련 정보원

2/2. 국제 문화기구 발간 정책보고서에서 요약되는 (2022.11.16. 발간 예정)

- (1) 유네스코
- (2) OECD
- (3) WCCF

[이슈 페이퍼-문화+정책]은 매일 셋째 주 수요일에 서울문화재단 블로그에 연재됩니다.

(https://blog.naver.com/i_sfac)

☎문의 : 미래전략팀

1. 아부다비 컬처 서밋 2022 현장에서 발견하는...

(1) 사막과 바다 ... natural & cultural cross-road

우선 이번 서밋을 계기로 아부다비나 중동지역에 대해 제대로 모르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참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부다비는 7개 토호국(에미리트, Emirate, إمارة)의 연맹체인 아랍에미레이트(UAE) 중에서 실권을 가진 토호국이며 동시에 UAE의 국가 수도입니다. 우리에게도 두바이가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아부다비 토호국이 UAE 전 국토의 85%를 차지하며, 세계 6위 수준으로 보유한 UAE의 석유 매장량¹⁾의 97%가 아부다비 지역에 속한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연합 토호국들 중에서 가장 권력 서열이 높아서 아부다비 토호국의 통치자(아미르)가 7개 에미리트 통치자들의 최고 행정·입법기구인 연방최고회의(Federal Supreme Council)의 추대를 통해 UAE의 대통령으로 선출된다고 합니다. 통치의 방식은 아직 부족문화의 유산을 따르고 있지만, 의외로 대부분 사람들이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매우 서구화된 도시국가입니다.

그리고 중동하면 으레 사막의 낙타를 떠올리지만, 수도 아부다비는 진주가 많이 생산되던 페르시아만에 접한 아름다운 해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대륙 중간에 위치한 아라비아 반도 동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예전부터 베두인들도 오아시스를 찾아서 들렀고, 아직도 철새들이 아프리카에서 중동으로 넘어갈 때 잠시 들렀다 간다고 합니다. 아부다비 자연사박물관 건립을 담당하고 있는 현지 학자 중 한 분은 이런 지형적 특징을 “자연적-문화적 교차로(natural & cultural cross-road)”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사람들은 사막이면서 동시에 바닷가인 지리적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남기 위해 그 만큼 더 변화에 빨리 적응하고 혁신지향성이 강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밋을 주최한 아부다비 문화관광부의 장관(Chairman, Department of Culture & Tourism) 무하마드 칼리파 알 무바라크(He Mohamed Khalifa Al Mubarak) 왕자도 개회사에서 사막의 베두인들이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닥불 주위에 둘러 앉아 민주적이고 성찰적인 토론을 통해 결론에 도달했던 전통에 이번 서밋의 의미를 빚대었습니다. 이처럼 아랍에미레이트는 자연지형뿐만 아니라, “서로 충돌될 것처럼 보이는 이슬람문화와 기독교문화, 전통과 현대, 부족문화와 글로벌문화 등 다양성이 공존하며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문명의 절충지”(엄익란, 2022)²⁾로서 흥미를 끕니다.



UAE 정부가 선발한 아랍인 첫 여성 우주인 노라 알마트루시
(출처 : 연합뉴스, 2021.4.12.)

서밋 중에도 여전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가 중요한 토론 이슈였지만, UAE는 이슬람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개방되어 있다는 평가이고, 국가가 나서서 가부장적이며 보수적인 이미지를 깨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에는 청년부 장관에 22살의 여성을 임명해서 세계 최연소 여성장관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2021년에는 총 4305명의 지원자 중에서 4명의 우주인을 뽑을 때 2명의 여성 우주인을 포함시켰다고도 합니다³⁾. 2021년에는 모든 상장기업에 여성임원을 한 명 이상 두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도 있었습니다.⁴⁾ 하지만 국가가 이렇게 노력하는 데는 그 만큼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겠지요. 위에서 “자연적-문화적 교차로”를 언급한 분을 비롯하여 아부다비 인구의 88% 이상이 외국에서 유입된 이주민들인 독특한 인구구조가 주는 문화적 과제도 매우 큼니다. 특권층이면서 소수민족이 되어버린 에미리트 원주민들의 전통문화 보전과 함께 200개가 넘는 민족 정체성을 가진 국민들을 통합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문화 정체성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 풀어야 할 매우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번 아부다비 문화 서밋도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듯 했습니다.

(2) 문화정책 어젠다의 스펙트럼 ... 진주잡이 노동요부터 휴머니이드의 인간성 토론까지

올해 서밋의 주제는 “A Living Culture”였습니다. 이것을 “생활문화”라는 우리의 정책용어로 옮기는 것은 여러 다른 의미를 담아내지 못해서 부적절합니다. 동시대 시민들의 삶과 연결된 문화의 “인접성(Proximity)”과 문화 및 창조 생태계 활력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고민하는 점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문화” 또는 “현재 삶 속의 문화” 정도가 오히려 적절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A Living Culture”라는 주제를 각각 문화생태계 관점, 문화참여자 관점, 문화다양성 관점으로 나누어, 코로나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문화의 변화, 현장의 애로,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들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구조로 진행되었습니다.



“2022 아부다비 문화서밋”(Abu Dhabi Culture Summit 2022)의 구성

전체 주제 : A Living Culture

Day 1. Living Cultural Ecosystems – a sectoral lens

Day 2. Living in Culture – a people/community/cultural consumer-participants lens

Day 3. Culture, Diversity, Power – a diversity lens

사흘에 걸쳐 진행된 서밋의 프로그램은 진주잡이 전통 노동요 공연에서부터 문화예술과 인간에 미래에 대한 휴머노이드 로봇과의 대화까지, 형식과 주제가 다양하게 펼쳐졌습니다. 각 세션 프로그램을 유네스코, 구글, Economist Impact, the Design Museum, 아부다비 루브르 박물관 등이 맡아서 구성하여, 문화예술과 기술, 경제 및 사회를 아우르는 다양한 시각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초청된 연사들은 유네스코 등 국제문화기구 관계자나 문화정책 연구자들, 그리고 영국 디자인 뮤지엄(the Design Museum), 프랑스 아를 뮤지엄(Luma Arles) 대표, 싱가포르 에스플러네이드(Esplanade) 등 세계적인 문화기관의 대표자, 아부다비 루브르 박물관을 설계한 건축가 프랭크 게리 등 문화계 인사들뿐만 아니라, 리투아니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며 흔히 "철의 여인"으로 불리는 달리아 그리바우스카이테(Dalia Grybauskaitė)를 비롯한 세 명의 전직 대통령, 미국에서 The Daily Show를 진행하는 남아공 출신 코메디언 트레버 노아(Trevor Noah), 과학과 예술 융합 작업을 보여주는 예술가, 휴머노이드 예술가 아이다(Ai-Da)까지, 실로 다양했습니다.

이들이 들려주는 대화의 주제들은 앞으로 문화정책이 다루어야 할 의제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전직 여성 대통령들이 강조하는 여성의 사회 참여와 인권 신장을 위한 문화의 역할, 인종차별과 이중 정체성 속에서 자란 톱스타 코메디언이 들려주는 개인의 정체성과 맥락적 이해에 기반한 소통의 중요성, 인공지능 휴머노이드가 답하는 기계문명 시대의 예술과 인간성의 본질에 대한 성찰, 고위급 외교관이 전하는 디아스포라와 문화외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재난 전문가가 요구하는 기후위기 대응 문화예술 행동 등은 아직 우리가 많이 다루지 않고 있거나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야할 이슈들이었습니다.



UAE 대통령 문화정책 자문관이 진행한 첫 번째 세션 여성에 의한 사회변화 중요성을 강조한 리투아니아, 크로아티아, 말라위 전직 대통령들 초청 대담



행사 총괄 진행자 영국 디자인 뮤지엄 관장 팀 말로우(Tim Malow)와 휴머노이드 예술가 아이다(Ai-Da) 간의 인간성과 예술의 본질에 대한 대화

(3) 이를 펼쳐 보여줄 수 있는 프리즘 ... 왕권의 리더십?

이번 서밋은 아부다비 토호국의 문화관광부가 주최했지만, UAE 국가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UAE 대통령 문화정책 자문관인 자키 누세베이(HE Zaki Anwar Nusseib) UAE 대학 총장이 전직 대통령들과의 대담 진행자로, 누라 알 카비(HE Noura Al Kaabi) UAE 문화-청소년부(Culture & Youth) 장관이 기조연설자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영국의 보호령 아래에 있다가 1971년에 토호국 연합으로 건국한 UAE의 지도자들은 석유만으로는 국가의 미래를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을 일찌감치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지식, 상업 자본, 관광 기반의 경제 다각화와 사회 발전을 위해 2010년에 “UAE Vision 2021”을 공포(안령, 2017)⁵⁾ 하였습니다. 이어 2017년에는 비전 2021 전략의 이행 이후 다가올 50년에 대한 장기 국가발전 전략인 “센테니얼 2071(Centennial 2071)”을 공개했는데(이형민, 2021)⁶⁾, 2071년은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아직 역사가 50년 남짓한 신생 국가로서, 마치 회사의 경영전략처럼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 전략을 수립할 때 떠올리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UAE 연합 국가차원의 미래 비전 이외에 각 토호국들도 경쟁적으로 미래 전략을 수립하였는데, 2016년에 두바이 정부가 발표한 “두바이 산업전략 2030(Dubai Strategy 2030)”에서는 항공·우주 산업 등 6개 산업군으로의 다각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부다비 정부는 2006년에 “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을 수립했는데 그 중점 육성 분야가 에너지, 바이오테크놀로지 및 의약품 이외에 관광, 교육, 미디어를 포함한 총 12개 분야였습니다.(이형민, 2021) UAE가 2024년 달에 무인우주선을 발사할 계획을 세웠고⁷⁾ 2021년 2월에 이미 무인탐사선 아말(희망이라는 뜻의 아랍어)이 세계에서 5번째로 화성 궤도에 진입했다는 뉴스외 이번 문화서밋 개최의 맥락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⁸⁾

이런 국가 전략 차원의 변화라면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와 문화의 변화에도 관심을 가질만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한 세계 최연소 여성장관이 탄생했던 2016년 정부조직

정비로 “관용부”와 “행복부”가 신설되었는데, 이 또한 석유 이후 시대를 준비한 인재 육성과 변화 대응 차원이었다고 합니다.⁹⁾ 국영 석유기업이 벌어들이는 오일머니 외에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부인들이 이슬람 문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근본주의”와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시키고, ESG 경영 등 글로벌 기준 맞추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는 아랍국가 최초로 남성근로자들에게 출산휴가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¹⁰⁾. 예전에는 중동의 풍습에 따라 금요일, 토요일이 휴일이었는데 2021년부터는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를 주말로 지정해 세계 최초로 4.5일제를 도입한 국가가 되었습니다¹¹⁾.



세션 프로그램들이 중계되는 가운데 해외 초청 연사들과 국내 초청 청중들이 대화하고 있는 MAS(Manarat Al Saadiyat) 미술관 로비 전경

사실 이번 서밋의 규모나 해외 초청 연사들의 면면, 그리고 이들에 대한 융성한 대접을 보면 놀라울 따름인데, 이 모든 것이 국정을 이끄는 에미레이트 왕족들의 문화에 대한 국가 비전 차원의 관심이 반영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부다비 문화 서밋은 2017년부터 개최되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3년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올해 행사도 당초 지난 5월에 개최 예정이었으나 행사 하루 전에 서거한 아부다비 국왕의 국장으로 인해 연기되었던, 사연 많은 행사입니다. 서밋 프로그램 중 각각 장관직을 맡고 있는 왕자와 공주 남매가 함께 무대에 올라 토론하고, 장관급 정부 요직을 맡고 있는 왕족들이 직접 문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기조강연자로 나선 모습이, 민주 국가 문화정책 연구자에게는 매우 이채로우면서도 흥미로웠습니다. 결정권을 가진 왕족의 강한 리더십과 풍부한 재원이 뒷받침 될 때 문화정책이 얼마나 넓고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펼쳐질 수 있는지를 확인할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문화의 가능성을 펼쳐 보이는 프리즘으로서 민주적 시스템과 왕정 시스템의 장점과 단점을 고민하게 하는 상황과 이에 대한 외국 참가자들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민주적 통제를 받는 행정시스템 안에서의 KPI(핵심성과지표)라는 문제 앞에서 대화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것이 씁쓸한 풍경이었습니다.

(4) 글로벌라이제이션 ... 맥락을 소통하는 문화적 대화

서밋 기간 3일 모두 행사장 앞에서는 아랍에미레이트의 전통 음악 공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손님을 환대하는 “Al Razfa”, 부르고 대답하면서 일체감을 고양하는 “Al Azi”, 진주잡이 어부들의 흥겨운 노동요 “Al Mdema” 등. 사막과 바닷가 환경에 맞춰 정착한 전통음악의 연행 방식과 리듬뿐만 아니라 악기까지 우리 전통음악과 많은 유사점을 보여서 흥미로웠습니다.



Abu Dhabi Culture Summit 2022 식전행사 공연으로 소개된 진주잡이 어부들의 노동요



우리나라 장구와 비슷한 타악기로 연주된 아랍에미레이트 전통 음악 공연 모습

그런데 이들 에미레이트 원주민의 전통문화가 국민들의 대부분을 묶어내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되돌아보더라도, 한국의 전통문화를 강조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오히려 배제감을 느낄 다민족 국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쉽게 간과되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한 국가 안에서나 글로벌 네트워크 안에서 문화는 가치 차원의 보편성을 지향하면서도 그 표현의 다양성은 지켜져야 할 중요한 이슈입니다. 결국 인간성이라는 보편성과 개인의 취향이라는 개별성의 조화로운 공존은, 문화정책이 풀어야 할, 민감하고도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문화도시를 지향한다면 글로벌함(global)과 로컬함(local)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도시 문화정책가의 숙제입니다.

본인의 경험이 투사된 코미디언 트레버 노아의 대화는 문화가 개인의 정체성과 표현의 자유에 가하는 이중적인 성격의 영향에 대해 고민하도록 하였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정해져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도 문화이고, 그런 정의를 무시하고 나의 문화를 찾아가는 것도 문화이다...(어떤 정체성을 더 중시하는지 질문에 대한 답변) 정체성은 라벨과 같은 것이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지만, 그 정체성이 계속 변화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너무 지나치게 자유로움만을 추구하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상실감에 빠지게 되고(get lost) 너무 제약을 주게 되면 개인에 대한 억압이 된다. 이 둘 사이의 밸런스 맞추기가 필요하다...모욕적인 공격(offend)은 그 사건들이 일어난 사회와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 (전세계 어디에서나 같이 보는 TV 드라마처럼) 정보가 글로벌화 되면서 맥락이 사라지는 문제가 있다. 맥락을 해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트레버 노아의 대화 중)



개인의 정체성과 맥락적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코미디언 트레버 노아(Trevor Noah)와의 대화

두 사람이 대화를 할 때 공감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와 개념이 없다면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대화 상대의 독특한 주제성을 개별성 즉 로컬리티(locality)로 인식해주지 않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데이터를 받아들여 아주 보편적인 답을 도출하는 AI의 “계산”과 같습니다. 이 또한 공감으로 이어지는 소통은 아닙니다. 로컬(개인의 사례)이 글로벌(보편 가치)과 만나 제대로 소통하려면 개별 사례들의 맥락이 설명되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초-글로벌한 온라인 플랫폼이 세계인의 이목을 연결하는 시대에, 글로벌 문화도시로서 매력을 끌려면 그 도시의 로컬한 매력이 맥락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국제무역과 문화교류에서도 서양 중심의 글로벌 공통기준이 통용되는 세계화(globalization) 시대에, 세계적인 문화도시 되기를 위한 글로벌 공통기준 수립하고 따르기(G-localization)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로컬 문화적 특성을 활용한 세계화(Cultural Globalization), 로컬의 맥락을 살린 세계화(Contextual Globalization)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것이 글로벌라이제이션(C-localization)(김해보, 2022)¹²⁾입니다. 세계가 연결된 디지털 문명 속에서 개인 차원에서나 도시차원에서나, 개별성이 존중받으면서 문화적으로 글로벌하게 소통하는 대화의 방식입니다.

다음 호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도시문화포럼(WCCF) 등 국제적인 문화정책 기구들이 최근에 발간한 정책보고서에서 확인되는 미래 문화정책 어젠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보 - 중동지역 문화정책 관련 정보원**

▶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 - 지역정보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com/index.do?MENU_ID=220

▶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https://diverseasia.snu.ac.kr/>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https://hufsmei.jams.or.kr/co/main/jmMain.kci>

▶ 아부다비 문화관광부



<https://abudhabiculture.ae/en/about-us>

▶ Culture Resource (Al-Mawred Al-Thaqafy)

<https://mawred.org/who-we-are/?lang=en>



☞ **격일로 업데이트 되는 <문화정책 뉴스스크랩> 텔레그램 채널**

<https://t.me/+J08NKL97t2Q3ZDdl> 을 구독하시면 더 다양한 정보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슈 페이지-문화+정책]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일 뿐 서울문화재단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문의 : 미래전략팀

<참고한 문헌과 기사들>

- 1) UAE, 대형 유전 확인..“세계 6위 원유 매장국 돼” (강상훈, 연합뉴스, 2019.11.5.)
- 2) “전환기의 아랍에미리트, 어떤 젊은 세대를 원하는가” (엄익란, SNUAC 다양성+ASIA, 2022.9월호)
- 3) UAE, 첫 아랍 여성 우주인 선발...27세 기계공학 석사 출신 (김유아, 연합뉴스, 2021.4.12.)
- 4) "모든 상장기업은 여성임원 의무화"...중동에도 'ESG 바람'[선한결의 중동은지금] (선한결, 한국경제, 2021.03.15.)
- 5) “아랍에미리트 정부 구성과 토호국별 영향력” (안령,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2017.7.13.)
- 6) “2021년 UAE 산업개관” (이형민, 코트라 국별 주요산업, 2021.8.10.)
- 7) UAE총리 "2024년 달에 무인우주선 발사 계획" (노재현, 연합뉴스, 2020.9.29.)
- 8) UAE의 화성궤도 순항우주선 아말, 첫 화성사진 보내 (김재영, 뉴시스, 2021.2.14.)
- 9) '22살 장관' UAE 청년부 여성 장관... 세계 최연소 (박상숙, 서울신문, 2016.2.12.)
- 10) UAE 남성 근로자들도 출산휴가 받는다...“아랍국가 최초” (노재현, 연합뉴스, 2022.8.31.)
- 11) 아랍에미리트, 주 4.5일제 세계 최초 도입...“워라밸 맞추자” (이지예, 뉴시스, 2021.12.7.)
- 12) “Changed life, Changing culture, and the Policy to change in the age of Post-corona & Culture as Algorithm : with C-lobalization, Empathy and the Arms' length principle” (포스트 코로나와 알고리즘 시대에 변화된 생활과 변하는 문화, 이에 대응하는 문화정책의 변화_ 글로벌라이제이션(C-lobalization), 공감, 팔들의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 (김해보, Abu Dhabi Culture Summit 2022)